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12회

12. 거듭나는 것, 곧 새로운 피조물

2010년 7월 3일(안식일 아침)

[요3:3-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序;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근본적 신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아담 안에서 죽은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자기를 비어 낮추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정녕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자원하여 아들의 신분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이 죽을 그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담의 후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하여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거듭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심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전 청결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아마도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출현에 대한 말씀을 연구했는데 특히 말라기 3장을 유의한 것 같습니다.

[말3:1,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2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홀연히 성전에 나타나서 장사하는 집이 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능력을 본 사실을 생각할 때 바로 그분에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요 고회 의원인 사람이 아직도 무명한 젊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체면 문제이지요.

그래서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거기 모여 있는 불쌍한 민초들에게 이적으로 병을 고쳐주며 위로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요3: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참 정중한 인사요 대단한 찬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대답은 결례를 하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에 가타부타 반응을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십니다.

[요3: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인사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니고데모의 인사 말 속에 감추어진 그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하시고 바로 그것을 대답하신 것입니다.

[요2:24,25]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문을 하지요.

[요3: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삽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요3:5~7]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 이 사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신 사실을 우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어오는 생명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생명이요 죽은 생명입니다. 사형수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죽을 생명 죽은 생명 사형수로 태어난 사람들을 육의 생명으로 난 사람들이며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이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들은 다 육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육이라는 말입니다. 육으로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요. 결국 사형이 집행되면 죽는 것이며, 죽은 사람은 산 사람들의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막12: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있는 사람들은 산 자들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지요. 이 세상의 상태로 이야기 한다고 해도 사람이 죽으면 산 자의 집에서 내어보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사람일지라도 죽으면 산 자의 땅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듭남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며, 거듭날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입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지요. 거듭난다고 하면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열정이 생겨서 예수를 믿는 사업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 부지런히 나가며, 또 무언가 성질이 더 착해지고 너그러워지며 부드럽고 겸손해져서 좀 변한 것 같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요. 거듭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좋아졌다는 것이 반드시 거듭난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성질이 좋게 변할 수 있으니까요. 스님들의 모습이 참 자비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소위 고승들을 보면 참 자비롭고 뛰어난 좋은 성품을 가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좋은 성질로 변했다 해도 그것이 거듭난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만 살면서도 성질이 좋아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죽은 자이더니 이제는 산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산 자의 나라에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2.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함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그런 재주가 있어서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난다 해도 그것은 육으로 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죽을 생명을 받아 태어난 사람은 그런 식으로 골백번을 난다해도 역시 육으로 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간단히 말했지만 그 실상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어려운 사실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이 죄의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물로 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잘 가르쳐줍니다.

[벧전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물이 침례를 뜻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침례와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침례는 사람을 물속에 잠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일으키는 예식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례를 하지만 성경은 침례를 가르칩니다. 이 시간에 침례의 형식에 대한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더 하지 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의 의미를 깨달으면 물속에 잠갔다가 일으키는 것이 침례의 바른 형식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침례가 거듭나는 것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침례가 왜 거듭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자기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시인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형수이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시인하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욕에 속한 자아가 죽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속에 잠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호흡이 완전히 멈출 때에 판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입니다. 세례는 머리에 물을 적시는 것인데 아무리 머리에 물을 적셔도 여전히 호흡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표상할 수 없지요.

[롬6:3~5]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침례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의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는 말 중에 물은 침례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육체의 생명으로만 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그 상태를 죽음으로 처리해야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벧전3:21]을 다시 읽어봅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 말씀은 물은 침례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침례는 아무것도 표상하지 못합니다. 거듭남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벧전1:3,4]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공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침례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다 표상하는 것이 됩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뜻하는 것이지요. 물속에 잠길 때 호흡을 멈추는 것은 죽은 것을 뜻하고 물속에 있는 것은 장사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식이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예식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침례로 옛 사람, 곧 아담 안에서 죽어서 육체뿐인 자아에 대하여 죽은 자에게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롬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경험을 하는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에서 벗어났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런 사실을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남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이 계속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마음대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거듭난 결과는 있어도 그 시간과 어떤 경로로 거듭났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을 밝히셨고, 그렇게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가르쳐줍니다.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께서도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실 것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3. 거듭나는 구체적인 길

예수님은 이런 설명을 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 부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의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데는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요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뉴마인데 성령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영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16:13,14]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며,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떠나서 거듭나는 길이 없습니다. 요전에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릴 때 오직 기록한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나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다 기록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성경말씀 없이 아무리 좋은 성질로 변해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사업에 열심히 몸 바쳐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벧전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거듭나는 길이 없는 것이며, 성령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며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일하시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4. 어떻게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는가?

사람이 스스로 거듭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고후13: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러운 자니라.

이 말씀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롬8:5,6]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면 그 정신이 성경과 일치하는 정신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거듭나기 전과 달라집니다. 즉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아담 안에서 육으로만 있었는데, 그때는 육의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영으로 났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의 의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 하나님적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의 사상과 언어와 생활이 다 영적인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롬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곧 물과 성령으로 나서 영에 있는 자가 된 사람을 육신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살덩어리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인 그의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과 인격과 생활이 전적으로 성령의 주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경향을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육의 생각과 육의 생활을 할 때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육의 사고방식으로 생활하도록 유혹하고 충동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롬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영과 육의 싸움이 거듭난 성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갈5:16,17]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의 세상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에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다가 사단의 유혹과 충동에 쉽게 반응합니다. 이때 영의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곧 죄를 짓게 됩니다.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사도였지만 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며 날마다 죽는 경험으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즉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지요.

[고전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고전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애청자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전적으로 성경적인지, 말과 생활이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려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스스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듭났는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사상과 생활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연구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거듭났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명상하고 그 말씀의 원칙으로 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으로 사는 거듭난 사람이 살기 힘 드는 것이 이 세상의 환경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이 주장하고 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거듭난 세상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로 가르치십니다.

[마19: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새롭게 된다는 말이 “팔링게네시아”인데 딤후3:5에는 중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팔링게네시아는 다시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은 세상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세상에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 산 사람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요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산 자의 나라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된 사람들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거듭나신 것 같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진정 거듭난 경험에 이르기를 바라고 시험하고 확증하여 거듭난 생명으로 하루하루 이기는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들의 신분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도록 생명의 성령께서 오늘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옵시고, 오늘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므로 오직 성령으

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10. 5. 21(금) 10:15am.

이 방송을 듣고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설교자는 760-329-3846이나, 626-590-5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